

한-중 FTA 체결 검토...전남농업 준비

관세 풀린 中저가 농산물 농업기반 초토화 불보듯

한국과 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농업이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가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값싼 중국 농수산물들이 관세가 인하된 더욱 낮은 가격으로 한국시장에 불려 올 경우 한국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비중이 큰 전남 농업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제1교역대상국 파급력 상상초월 제조업도 기술격차 줄어 부정적 효과

◇한·중 비교우위 산업은? = 한국과 중국은 대표적인 수출지향형 국가이지만, 각국의 사정 때문에 FTA 논의가 더디게 진행됐다.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이 자 투자대상국이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FTA 체결시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 개시 선언조차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한·중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이득을 보는 분야로 거론되지만, 농업이나 단순 제조업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공포감이 워낙 심해 격렬한 반대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구조는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국에 완제품과 농수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가 체결되면 대부분 최종 소비제품인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는 무역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해소되는 점은 한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실례로 중국의 조선산업은 풍부한 인력과 저임금 등으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정도로 뒤쫓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산업분야가 기술 혁신과 선진국 배가기 등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대 한국 수출 증가로 무역확대 효과의 삭감 및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

등도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업 분야 큰 위협 = 지금도 저가의 농산물 수입은 국내 농수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와 작물생산의 포기 등으로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농산물이 관세마저 인하돼 더 싼 가격으로 국내에 밀려올 경우 아직 가격 경쟁력 등을 갖추지 못한 한국 농업은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남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구도가 심화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내 농산물 생산비 증가 등의 부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중국이 세계적으로 불신받는 자국 농업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는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양과 질 측면에서 한국 농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점도 전남 농업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중 FTA 체결이 전남 농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생생하다 명랑대첩” 탄성 절로



붉은 색 깃발을 매단 일본 함선들이 이순신 장군의 대형 동상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자진(一字陣)을 펼친 조선 판옥선들의 함포공격을 받아 곳곳에서 불에 타고 있다.



조선 수군의 10배가 넘는 133척의 함선으로 공격해 온 왜군들이 울돌목의 거센 물결과 노련한 조선 수군을 이겨내지 못해 황급히 도망치고 있다.



진도대교 위에서 축제를 관람하던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412년전 명랑대전 당시 울돌목에서 숨겨진 희생자들을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

412년 전 울돌목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무찔렀던 대승리를 재현한 ‘2009 명랑대첩축제’가 11일 32만 명의 관광객 몰이를 하며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진도대교를 무대 삼아 열린 이번 축제에는 신종플루의 위험에도 전국 각지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몰렸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8천500여 명이 참가, 한국의 전통문화에 호감을 표시하는 등 명랑대첩축제가 전남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올해는 명랑대전 당시의 이순신 장군과 왜장 구루시마, 조·명 연합군을 끌었던 진린 장군의 후손을 비롯 난중일기에 기록된 의로운 민초 오국신, 양응지의 후손들이 참가해 한·중·일 3국의 관계자들이 화합하는 자리로 치러졌다.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해전 재현행사는 사실적이면서도 박진감 넘

2009 명랑대첩축제
관람객 32만명 몰려
한중일 화합 자리도

치게 펼쳐져 관광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11일 열린 민가행렬에서는 상여 7기와 상여꾼 1천여 명, 만장 깃발 700여 기가 진도대교를 가득 채우는 일대 장관이 연출됐다.

축제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재현하면서도 영화적인 요소를 가미해 재미를 부가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축제를 펼쳐보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축제현장에 참여한 오순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소장은 “이렇게 규모가 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한국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전남 민초들의 의로운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쳐 나서는 구국정신을 살려나가고 싶었다”며 “앞으로 명랑대첩축제가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협 을며 매입자금 1조4천억원 지원

작년보다 1천억 늘려

농협중앙회는 올해 수확기(10~12월) 지역농협이 벼를 사들이도록 용자해주는 벼 매입자금을 작년보다 1천억원 늘린 1조4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 풍년 예상되면서 쌀값이 하락하자 수

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농협중앙회의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1조3천억원으로 발표했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1천억원이면 벼 9만톤을 더 매입할 수 있어 올해 수확기 모두 220만톤의 벼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또 농가 출하물량을 조기 흡수하기 위해 당초 11월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 중 2천억원은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 지원

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 쌀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12일까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매년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코리아 조이 여행사
234-3222

올레길

제주 2박3일 패키지

98,000

가족·연인과 함께 일본여행으로 가을을

카탈리아로 떠나는 류슈 온천여행

4일 299,000

하우스텐보스 즐기기

4일 399,000

대아고속해리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349,000